



봉사는 나눔과 실천을 함께하는 사랑이자 행복입니다

정운란 씨

지역 내 소외된 계층 발굴에서 지원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정운란(前 대한적십자사 고양 원당봉사회 회장) 씨는 '2018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고양시 일반인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3년째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정운란 씨는 2018년 6월 말 현재 23,738시간의 봉사 시간을 기록 중이다. 새해가 밝아도 하루도 쉬지 않고 소외계층을 돕는데 맘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글·사진 편집부

지난해 고양시민 최초로 큰 상을 수상했다고 하지요?

‘언제 어디서든지 봉사를 하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다’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저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23년째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봉사’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시절에 우연히 TV를 통해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도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1994년 고양시 마두동으로 전입한 후 당시 적십자 고양원당봉사회 회장님의 권유로 1996년 대한적십자사 고양 원당봉사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인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구호,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새터민 정착 지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 예방 활동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봉사를 하다보면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은 일산에 사시는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동안 목욕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치매도 있으셨죠.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엄마? 엄마 왔어? 엄마도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며 아기가 엄마한테 조르듯 했습니다. 저도 같이 목욕을 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즐겁게 목욕 봉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같이 목욕을 했던 아기 같은 그 어르신이 가끔 생각납니다.

수십 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나만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저 역시 살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경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을 만큼 큰 시련이 닥쳐 가족이 거리에 나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봉사를 통해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좌절하지 않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죠. 전문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싶은 생각에 미술심리치료 자격증, 노인 상담사, 스포츠마사지, 응급처치법 등 공인 자격증을 7-8개를 땀습니다. 봉사도 하다 보니 중독인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하고 같이 좋은 일 좀 하시죠?” 하면 대부분 “시간이 없다”, “쓰고 남으면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과 기부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봉사를 해보지 않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음속에 봉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권유로 시작했듯이 만약 누군가가 함께하자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셨으면 합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능들을 나눔으로 실천하다보면 이웃은 물론 나 자신이 정말 행복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작은 활동들을 보면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가 사랑과 나눔의 활동을 통해 이웃에서 이웃으로 확산되길 소망해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지하층 13, 14호

문의 031-906-1365 / www.gy1365.or.kr